CEO Report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2014. 6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요 약

2010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14년 1/4분기에도 회복세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IMF는 2014년 2/4분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됨에 따라 2014년 세계경제가 성장률 하락세를 멈추고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14년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할 것이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는 2014년 1/4분기 3.9% 성장하는 등 2013년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는 원화 강세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과 주거비 상승세 둔화, 고용여건 호전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수출이 세계 교역량 증가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그러나 기업부채 조정 시작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가 2/4분기 들어 급락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4년 국내경제가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2013년 10월) 전망을 유지함. 국민계정체계 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부분(0.3%p)을 제외할 경우 3.6% 성장률 전망은 당초 3.3% 성장률 전망과 동일함.

2013년 연평균 2.8%를 기록한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2014년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경제성장률 개선 등으로 0.4%p 상승할 것으로 당초 전망하였으나, 원화 강세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0.1%p 높아진 2.9%가 예상됨. 연평균 원/달러 환율 역시 당초 전망보다 5원 낮춘 1,035원으로 전망치를 수정함.

2013년 10월 전망 당시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FY2013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여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당초 전망(4.4%, 6.1%)보다 각각 2.0%p, 0.3%p 낮은 2.4%,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이에 따라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도 3.7%(당초 전망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3 개인보험 -10.6%(보장성 4.3%, 저축성 -17.2%), 단체보험 25.7% 등 전체적으로 -8.0% 성장하였음. 저축성보험은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하였고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출시 및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단체보험은 보험업계 결산일 변경,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및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추가적립부담 발생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을 보장성보험은 당초 4.3%에서 6.9%로, 저축성보험은 당초 4.6%에서 -0.5%로, 단체보험은 당초 2.9%에서 7.3%로 조정함.

다음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 장기손해보험 5.6%, 개인연금 3.1%, 퇴직연금 9.8%, 자동차보험 0.4%, 일반손해보험 1.5% 등 전체적으로 4.2% 성장하였음. 이는 FY2012에 비해 8.2%p나 낮은 실적임. 손해보험에서 비중이 높은 장기손해보험이 FY2012 원수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하락한 것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세 급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2014년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나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크지 않은 만큼 손해보험 성장세도 제한적일 것임.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전망을 장기손해보험은 당초 7.4%에서 7.1%로, 연금부문은 당초 5.1%에서 6.0%로, 자동차보험은 당초 2.3%에서 2.2%로, 일반손해보험은 당초 6.2%에서 5.1%로 조정함.

CONTENTS

Ⅰ. 경제·금융시장 ······································ 1
1. 해외경제 ··· 1
2. 국내경제 ··· 8
3. 국내금융시장 ·· 20

Ⅱ. 보험시장 ·· 23
1. 주요지표 ··· 23
2. 생명보험 ··· 26
3. 손해보험 ··· 35

〈부록 1〉 2014년 생명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 전망 ······ 48
〈부록 2〉 2014년 장기성 손해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 ··· 49

Ⅰ. 경제·금융시장

1. 해외경제

■ 2014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경우 개선되었으나 미국의 경우 크게 악화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

-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투자 및 수출 부진으로 2013년 4/4분기보다 3.6%p 하락한 -1.0%(연율화)를 기록함.
  - 지난겨울 혹한, 폭설 등 날씨이변에 따른 일시적 부진으로 평가됨.
- 유로지역의 경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013년 4/4분기와 유사한 0.8%(연율화)를 기록함.
  - 유로지역의 저물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경제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됨.
- 1/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전기대비 6.7%(연율화) 성장하였음.
  -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5%→8%)을 앞둔 소비 증가, 기업 수익성 및 고용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1/4분기 중국경제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1] 지속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전기보다 0.3%p 하락한 1.4%(연율화 5.6%) 성장률을 기록함.

1)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향은 ① 민생개선: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② 물가안정: 유통구조 및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 강화와 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향, ③ 질적성장: 민간부분의 소비 확대를 주도하되, 투자의 질과 효율성 개선 촉구 등 세 가지임.

표 Ⅰ-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1]	-	-	-	-	3.2	-	-	-	-	3.0	-
선진국[1]	1.6		0.4		1.4	1.1		2.5		1.3	0.5
신흥국[1]	5.1		5.1		5.0	4.6		5.2		4.7	-
미국[2]	3.7	1.2	2.8	0.1	2.8	1.1	2.5	4.1	2.6	1.9	-1.0
유로[3]	-0.3	-1.1	-0.6	-2.1	-0.7	-0.9	1.3	0.6	0.9	-0.4	0.8
일본[4]	4.1	-2.5	-3.0	0.2	1.4	5.3	2.9	1.3	0.3	1.5	6.7
중국[5]	1.4	2.1	2.0	1.9	7.8	1.5	1.8	2.3	1.7	7.7	1.4

주: 1)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2)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성장률.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4.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4).
3) Eurostat(2014. 5).
4) 일본 내각부(2014. 6).
5) 중국 국가통계국(2014. 4).

- 2013년 신흥국 경제는 2012년에 비해 0.3%p 하락한 4.7% 성장에 그치는 등 선진국(1.4% → 1.3%)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2014년 1/4분기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IMF는 2014년 세계경제가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 중심의 성장세 개선으로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IMF는 미국이 2014년 선진국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유로지역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신흥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

표 Ⅰ-2 전망기관별 2014년 세계경제 전망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독일	중국
IMF (2014. 4)	3.6%	2.2%	4.9%	2.8%	1.2%	1.4%	1.7%	7.5%
OECD (2014. 5)	3.4%	–	–	2.6%	1.2%	1.2%	1.9%	7.4%
EU (2014. 5)	3.5%	–	–	2.8%	1.2%	1.5%	1.8%	7.2%
World Bank[1)] (2014. 1)	3.2%	2.2%	5.3%	2.8%	1.1%	1.4%	–	7.7%

주: 1) 2010년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가중치로 평균한 것임.
자료: IMF(2014. 4),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14. 5), OECD Economic Outlook; EU(2014. 5), European Economic Forecast; World Bank(2014. 1), Global Economic Prospects.

- 미국의 경우 1/4분기 역성장 하였지만 2/4분기부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4년 2.6~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고용시장과 가계 재무상황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될 것이고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투자도 증가하여 경제가 2013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함.
  - 미국의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통화정책과 부동산 시장 개선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또한 2014년 2/4분기 이후 날씨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와 생산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유로지역 경제는 2013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주요국인 독일이 고용시장 개선, 민간소비 확대로 인한 내수 회복 등으로 유로지역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함.
- IMF는 유로지역의 재정긴축 규모가 2014년 들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이 또한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징[2]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IMF는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효과 약화와 수출 부진 지속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1.7%에서 4월 1.4%로 하향 조정함.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수요가 집중되며 2014년 1/4분기 일본 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였지만, 2/4분기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에 대한 수출 증가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3] 효과가 나타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목표치 2.0%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의 경우 2014년 1/4분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경기부양 효과로 2014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정부는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정책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2014년 4월 2일 3대 미니경기부양책[4]을 발표함.

---

2) 유럽중앙은행(ECB)의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유로지역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디레버리징 확대 가능성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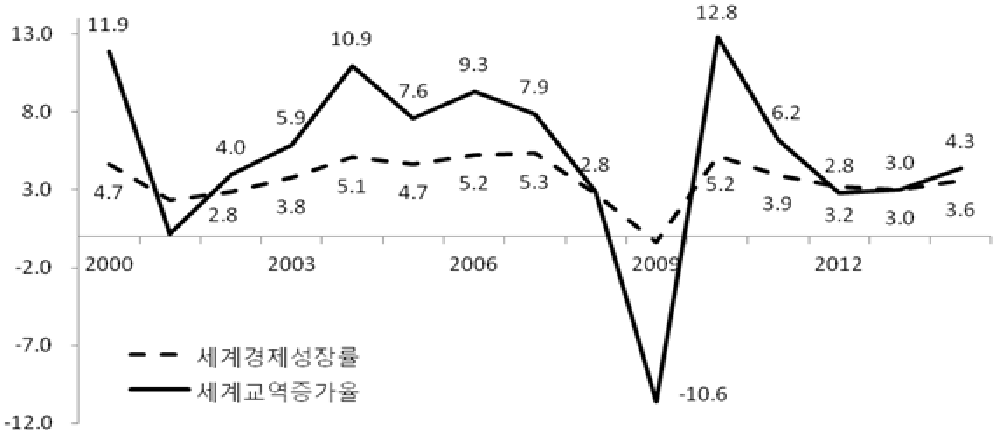
3)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출 확대 등 5.5조엔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함.

–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5]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미국과 유로지역의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세계경제성장률을 3년 만에 다시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6]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13년 3.0%에서 2014년 3.6%로 0.6%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2013년 3.0%에서 2014년 4.3%로 1.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Ⅰ-1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IMF.

4) 중국 정부의 미니경기부양책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철도건설 프로젝트 가속화,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함.
5) 중국 난닝시 부동산 관리국은 2014년 4월 주택판매 활성화를 위해 난닝시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주택구매를 허용하고 시중 은행들의 주택대출을 장려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 또한 중국 우시, 항저우, 텐진 북부 도시들도 주택 구매와 대출에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6) IMF(2014. 4), World Economic Outlook.

■ 2014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임.

- IMF는 2014년 평균유가를 2013년 104.1 달러/배럴과 유사한 104.2 달러/배럴로 예상함.[7)]

- 비 OPEC국가를 중심으로 원유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임.

■ 2014년 1/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향후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로 금리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 통화에 비해 달러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1/4분기 주요 선진국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지속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가능성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3월 옐런 미 연준 의장은 0~0.2%인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양적완화 종료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영란은행(BOE)은 2009년 3월부터 0.5%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영국의 경제 회복세로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됨.
  -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4월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였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0.5%를 유지할 경우 향후 인하 계획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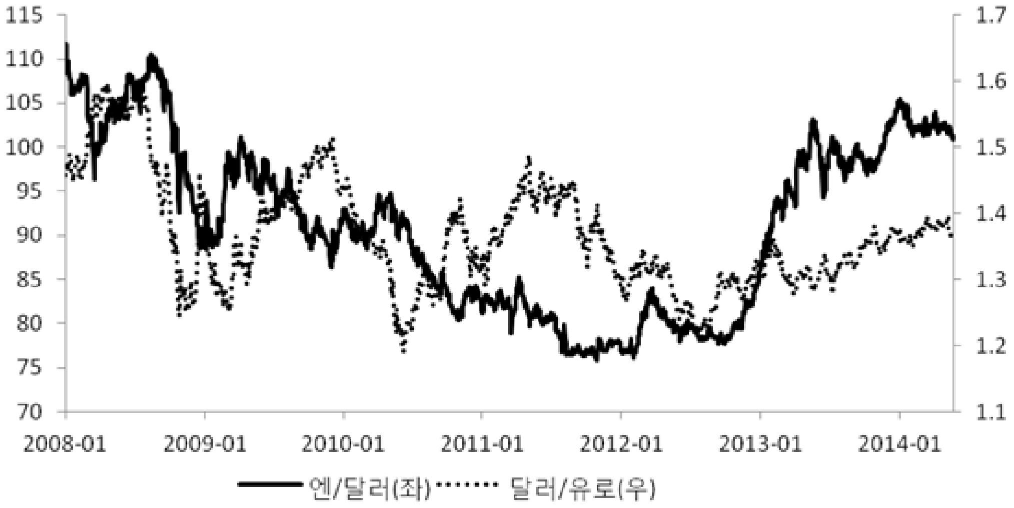
-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가시화로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에 비해 달러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7) IMF(2014. 4), World Economic Outlook.

-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으로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출구전략 가시화와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으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할 전망임.

그림 Ⅰ-2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이아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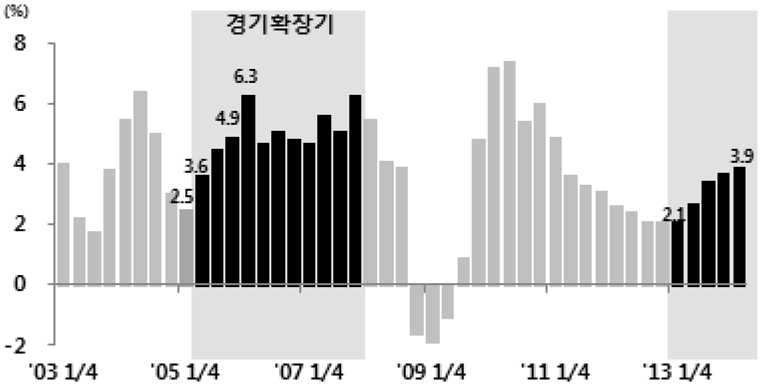
2. 국내경제[8]

〈성장〉

■ 2014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하며 2013년 1/4분기 이후의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의 회복세는 이전 경기확장기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임.

- 2012년 3/4분기부터 3분기 동안 2.1%를 기록하였던 경제성장률은 7분기 동안 1.8%p 상승하는데 그침.
- 그러나 신용카드 사태 이후 경제성장률은 2005년 1/4분기 2.5%까지 하락하였으나 1년 후인 2006년 1/4분기 6.3%로 크게 회복함.

그림 Ⅰ-3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8) 국민계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3년 말 전망치와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함.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가 다시 부진해지면서 내수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함.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총 취업자 증가율 상승[9] 및 개별소비세 인하[10], 그리고 1월 명절효과 및 2013년 4/4분기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11] 등으로 2013년 4/4분기보다 0.3%p 상승한 2.5% 증가함.
  - 민간소비는 2013년 1/4분기이후 소득여건이 소폭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 3/4분기 2.6%에 비해 부진함.

- 건설투자는 2013년 4/4분기 대비 1.1%p 하락한 4.3% 증가하였음.
  - 2013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정부의 추경 조기집행과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채 조정과 1~2월 대미수출 둔화 등으로 2013년 4/4분기대비 3.6%p 하락한 7.3% 증가하는데 그침.
  - 2013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기업 투자심리 위축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다 기저효과와 수출 증가세 등으로 하반기 회복세를 보임.

- 지식생산물투자의 경우 2013년 4/4분기대비 2.4%p 하락한 7.3% 증가함.
  - 국민계정 개편으로 기존의 무형고정투자에 R&D 투자, 지식생산물 투자 등이 추가로 계상되어 지식생산물투자로 확대됨.[12]

---

9) 총 취업자 증가율: 2013년 4/4분기 2.2% → 2014년 1/4분기 3.0%
10) 2014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하향조정됨. 이에 따라 2014년 1/4분기 승용차 판매가 14.1% 증가하였음.
11) 가계대출 증감액(전분기대비): 2013년 1/4분기 3.1조 원(0.3%) → 2013년 2/4분기 17.3조 원(1.9%) → 2013년 3/4분기 12.6조 원(1.4%) → 2013년 4/4분기 24.0조 원(2.6%) → 2014년 1/4분기 4.7조 원(0.5%)
12) 국민계정 개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험동향」(2014년 봄호) 참조.

- 2013년 지식생산물투자는 IT 제조업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2012년 보다 1.3%p 하락한 7.3%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4/4분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증가함.

- 재화수출은 자동차 및 IT 수출 확대로 3.9% 증가하였으나 재화수입은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3.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전분기에 비해 각각 0.9%p 상승, 1.5%p 하락한 것임.
  - 한편, 2013년 재화수출은 완만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재화수입은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였음.

표 Ⅰ-3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3	2.1	2.7	3.4	3.7	3.0	3.9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5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7.3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3
-지식생산물투자	8.6	6.6	7.3	5.3	9.7	7.3	7.3
-재화수출	4.4	6.6	6.5	2.4	3.0	4.5	3.9
-재화수입	1.9	-1.5	0.8	0.4	4.9	1.2	3.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4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미약한 회복과 기저효과로 인한 설비투자 개선, 그리고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3년보다 0.6%p 상승한 3.6%(국민계정 개편 이전 3.3%) 성장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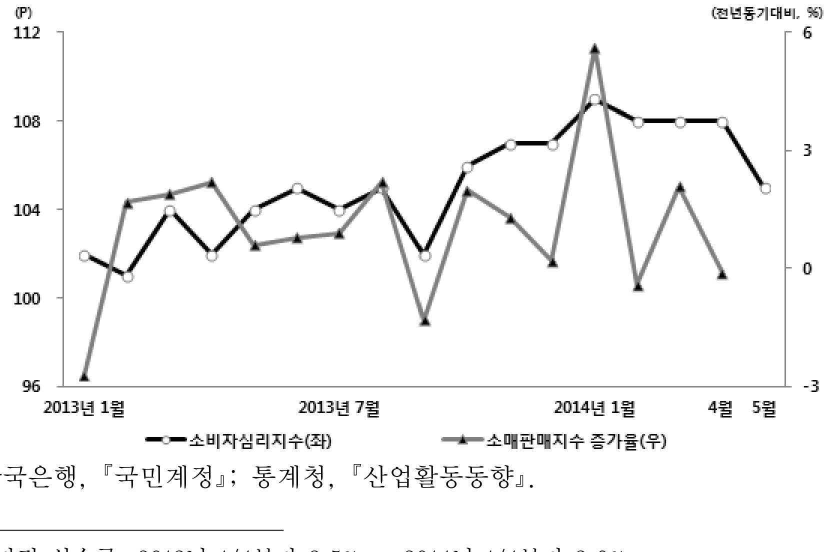
■ 2014년 민간소비는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013년에 비해 확대될 것이나 소비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2013년 2.0%에 비해 0.6%p 상승한 2.6% 증가에 그칠 전망임.

- 2013년 말 전망에서 민간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거비 상승세[13]가 부동산 거래 확대 및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및 교역조건 개선, 고용 증가세 등으로 민간소비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세[14]를 보이고 있고 2/4분기 세월호 참사 및 조선, 건설, 금융업계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비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림 Ⅰ-4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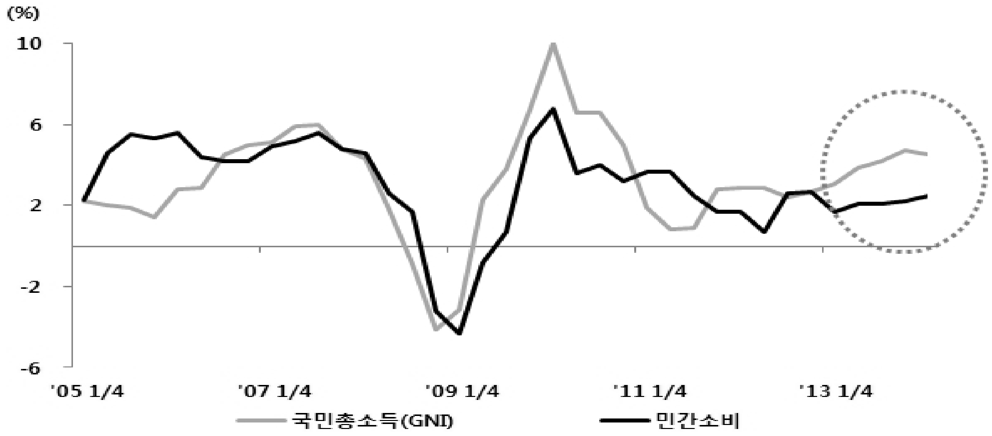
---

13) 전세가격 상승률: 2013년 1/4분기 3.5% → 2014년 1/4분기 3.0%
월세가격 상승률: 2013년 1/4분기 2.0% → 2014년 1/4분기 1.4%

14) 가계평균소비성향: 2012년 1/4분기 77.0% → 2013년 1/4분기 75.0% → 2014년 1/4분기 74.5%

● 또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세가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은 2012년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임.

그림 Ⅰ-5 국민총소득 증가율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4년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부진,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으로 2.1%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임.

● 2014년 1/4분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분기대비 9.0%p 하락한 13.4% 성장하는데 그쳐 향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2013년 건설투자가 6.7% 성장한데 대한 기저효과도 성장세를 제한하는 요인임.

●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개선과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상존함.

■ 2014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의 R&D 예산액 확대, IT 제조업 성장 등으로 7.2% 성장할 전망임.

● 2013년 7.3% 증가한데 대한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전망임.

■ 2014년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증가세, 그리고 지난 3년간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지연과 부채조정에 따른 자금수요 부진으로 6.0%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임.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1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강화[16] 등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임.

● 그러나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간의 관계가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등 수출이 설비투자를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008년 이후 제한적이나마 시작된 기업부채 조정으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 2008년 23%를 기록하였던 기업부채 증가율은 2011년 5.5%를 기록한 후 4% 초반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업 수익성 악화와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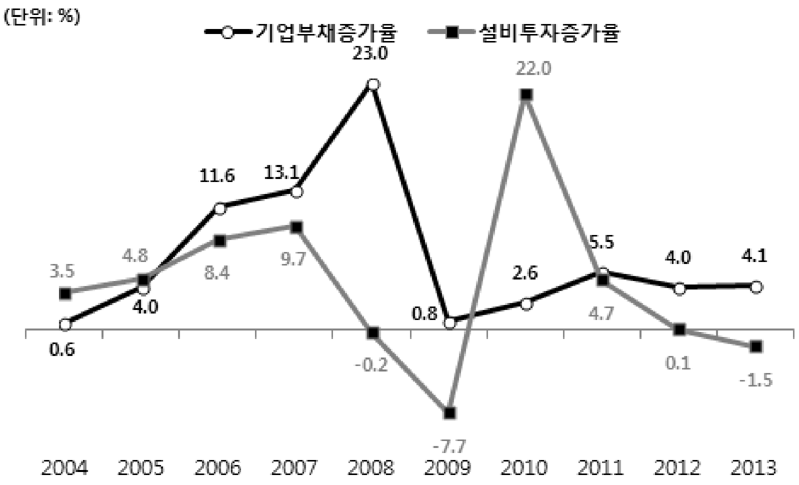
– 2014년 기업부채 증가율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임.

---

15) 2014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은 3조 8,43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2% 증가하였음(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3.9.30),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9,821억 원 편성").

16) 2013년 12월 7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사업장의 청산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게 조세·보조금·입지·인력 등을 지원하고 동반복귀기업과 주변 대학 및 연구소등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함.

그림 Ⅰ-6 기업부채증가율과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주: 국민계정은 2008SNA 기준, 자금순환은 1993SNA 기준임. 시계열 확보를 위해 자금순환은 개정 전 기준을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자금순환』.

■ 2014년 재화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6.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재화수입도 완만한 민간소비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세 전환 등으로 5.4% 증가할 전망임.

- 반도체 및 스마트 기기 등 IT 제조업 수출과 미국, 아세안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원화 강세로 인해 재화수출 성장세는 제한적일 전망임.
- 재화수입의 경우 자동차 수출 호조 및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 등으로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은 확대될 전망임.
  - 그러나 설비투자 회복세가 크지 않아 자본재 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임.

〈고용〉

■ 2014년 1/4분기 취업자수 증가율과 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고용률은 하락하였는데 이는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른 구직 기대감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4년 1/4분기 총취업자수 증가율은 2013년 4/4분기보다 0.8%p 상승한 3.0%,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4.0%,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2%p 하락한 58.8%를 기록함.

- 2013년 고용시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으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음.

표 Ⅰ-4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총취업자(만 명)	2,468	2,418	2,533	2,541	2,535	2,507	2,491	2,568
(증가율)	(1.8)	(1.1)	(1.3)	(1.7)	(2.2)	(1.6)	(3.0)	(2.3)
고용률	59.4	57.7	60.2	60.3	60.0	59.5	58.8	60.6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9
경제활동인구(만 명)	2,550	2,509	2,614	2,619	2,608	2,587	2,595	2,671
(증가율)	(1.6)	(0.9)	(1.1)	(1.7)	(2.2)	(1.5)	(3.4)	(3.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4년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고용여건은 소폭 개선되어 고용률은 2013년보다 1.8%p 상승한 61.3%, 실업률은 0.1%p 상승한 3.2%를 나타낼 전망임.

- 정부 복지 예산 확대와 고용률 70% 달성 노력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2013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크지 않은 설비투자 회복세, 건설 및 금융업 등의 구조조정은 고용여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물가〉

■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화 강세와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17] 등으로 2013년 4/4분기와 동일한 1.1%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기록함.
-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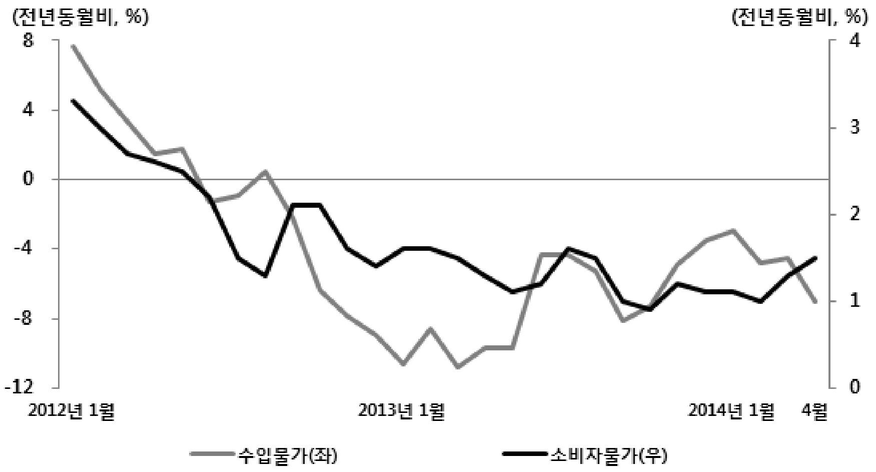
■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약한 내수회복세와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요금 인상 및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1.1%보다 0.7%p 상승한 1.8%를 기록할 전망임.

- 원화 강세,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로 수입물가 역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 요인은 크지 않음.
- 또한 2014년 중 내수회복이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17)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13년 3/4분기 0.1% → 2013년 4/4분기 -4.3% → 2013년 1/4분기 -4.7% → 2013년 4월 -3.5%

그림 Ⅰ-7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대외거래〉

■ 2014년 1/4분기 세계 교역량 회복으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 증가세는 정체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흑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상품수출 증가율은 4.0%로 전년동기 1.9%에 비해 확대되었는데 이는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반면 2014년 1/4분기 상품수입 증가율은 0.1%로 2013년 1/4분기 −5.4%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013년 4/4분기 1.7%에 비해 둔화됨.
-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178억 1,000만 달러로 2013년 1/4분기에 비해 57억 3,0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151억 3,000만 달러로 2013년 1/4분기에 비해 46억 7,000만 달러 늘어남.

■ 2014년 대외거래는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소폭 축소될 전망임.

- 상품수출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 회복, FTA 본격화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개선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성장세 둔화, 원화 강세 등으로 1.0%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임.

- 상품수입은 설비투자수요 부진, 국제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약하나마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있어 소비재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채원영 연구원)

표 Ⅰ-5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F)[2]		
			기존전망	전망모형 추정결과[4]	수정전망
실질GDP 성장률	2.3	3.0	3.3	↗	3.6[3]
(명목GDP)	(3.4)	(3.7)			(4.3)
민간소비	1.9	2.0	2.0	→	2.6
설비투자	0.1	-1.5	6.5	↗	6.0
건설투자	-3.9	6.7	2.5	↘	2.1
지식생산물투자	8.6	7.3	-	↘	7.2
재화수출	4.4	4.5	6.7	↘	6.3
재화수입	1.9	1.2	6.1	↘	5.4
실업률	3.2	3.1	3.3		3.2
(고용률)	59.4	59.5	60.0		61.3
소비자물가	2.2	1.3	2.3	↘	1.8

구분	2012	2013	2014(F)[2)		
			기존전망	전망모형 추정결과[4)	수정전망
경상수지(억 달러)	508.4	798.8	560.0	↘	630.0
상품수지(억 달러)	494.1	805.7	513.6	↘	644.5
상품수출(억 달러)	6,035.1	6,171.3	6,285.0	↗	6,235.5
(증가율)	(2.8)	(2.3)	(2.1)		(1.0)
상품수입(억 달러)	5,541.0	5,365.6	5,772.0	↗	5,590.9
(증가율)	(-0.7)	(-3.2)	(5.2)		(2.2)

주: 1) 2014(F)은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2014(F) 기존전망치는 국민계정 개편 전 기준(1993SNA, 기준년도 2005년), 수정전망치는 국민계정 개편 후 기준(2008SNA, 기준년도 2010년)으로 두 전망치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함(1993SNA의 무형고정자산투자에 R&D 투자 항목이 추가되면서 지식생산물투자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GDP 규모가 증가하였음).
3) 지식생산물투자 제거 시 3.3%
4) 추세를 화살표로 표시하였음. ↗는 상승, →는 변화 없음, ↘는 감소를 나타냄. 민간소비의 경우 전망모형은 2013년과 유사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 설비투자의 경우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그리고 건설투자의 경우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민간소비의 경우 수정전망에서는 2014년 1/4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세를 반영하였음. 추세적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승할 것이나 기업부채조정을 고려하여 설비투자 수정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었음. 대외부문의 경우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모형은 예측하고 있고 수입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상품수지는 2013년에 비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음. 그러나 내수부문의 위축으로 인한 수입증가율 둔화세를 반영하여 전망모형의 결과보다는 낮게 수정전망에서 반영하였음. 따라서 상품수지는 기존 전망치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 국내금융시장

〈금리〉

- 기준금리는 2013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2.5%로 동결되었으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 성장세 둔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소비 심리위축 등 금리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존재함.
  - 그러나 2014년 5월 한국은행은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유로 지역 경기 부진 완화, 국내 산업 활동의 회복세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세 등 대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함.

-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 경제성장률 개선 등으로 당초(2013년 10월) 2013년 2.8%에 비해 0.4%p 상승한 3.2%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2014년 상반기 국고채 금리는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 등의 영향으로 2.9%를 기록함.

- 2014년 하반기 들어서도 원화 강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의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고채 금리는 연평균 2.9%를 기록할 전망임.

표 Ⅰ-6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

(단위: %, 원)

구분	2012	2013	2014(F)					
			연간		상반기		하반기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실제치	기존 전망	수정 전망
회사채(AA-) 수익률	3.8	3.2	3.6	3.3	3.5	3.3	3.7	3.3
국고채3년 수익률	3.1	2.8	3.2	2.9	3.1	2.9	3.3	2.9
원/달러 환율	1,127	1,095	1,040	1,035	1,043	1,055	1,036	1,015

주: 기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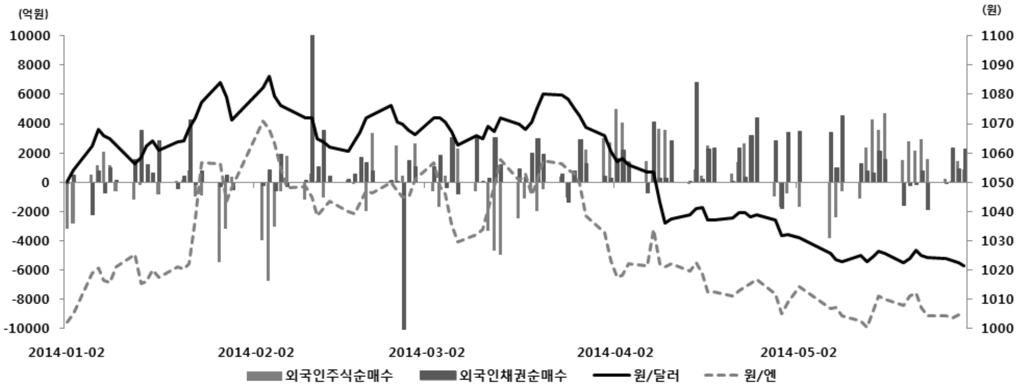
〈환율〉

-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자금유입 등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여 5월 말까지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55원이었음.

-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중국 및 우크라이나의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세였으나 최근 미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우려와 중국의 경기부양조치 기대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어 5월 평균 원/엔 환율은 1,007원임.

- 하반기 원화는 달러화에 대하여 강세 기조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4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3년 1,095원에서 60원 하락한 1,035원으로 예상됨.
  - 특히 2014년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성장세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원/달러 환율은 평균 1,015원으로 전망함.

그림 Ⅰ-8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와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이해랑 연구원)

Ⅱ. 보험시장

1. 주요지표

■ FY2013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손해보험 성장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였음.

-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어 8.0% 감소함.
-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둔화로 4.2% 증가에 그침.

■ 2014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3.7% 증가가 전망됨.

- 2014년에는 저축성보험 수요가 부진할 것이나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 보험 확대전략 등에 힘입어 2.4% 증가가 전망됨.
- 2014년에는 장기 저축성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5.8% 증가가 전망됨.

표 Ⅱ-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1]		2014(F) (기존전망)		2014(F)[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115.3	31.3	77.2	-8.0	117.1	4.4	111.1	2.4
손해보험	68.5	12.4	53.8	4.2	75.2	6.1	74.8	5.8
전체	183.9	23.6	131.0	-3.4	192.3	5.0	186.0	3.7

주: 1)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2)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 2014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18]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FY2013 감소세에서 성장세로 전환됨에 따라 FY2013보다 0.5%p 높은 12.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3보다 0.4%p 상승한 7.5%, 손해보험 침투도는 0.1%p 상승한 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표 Ⅱ-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2),3)]	2014(F)[2),4)]
생명보험	7.0	7.0	9.0	7.1	7.5
손해보험	4.4	4.9	5.4	4.9	5.0
전체	11.3	11.9	14.4	12.0	12.5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4) 2014(F)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18)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 2014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19] 역시 수입보험료 성장세 전환으로 2013년에 비해 11만 8,000원이 늘어난 368만 8,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20만 4,000원, 148만 4,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Ⅱ-3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3)]	2014(F)[5)]
생명보험	1,698	1,765	2,306	1,538(2,162)	2,204
손해보험	1,069	1,225	1,371	1,070(1,408)	1,484
전체	2,767	2,989	3,677	2,608(3,570)	3,688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4) 괄호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5) 2014(F)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최 원 선임연구원, 이해랑 연구원)

19)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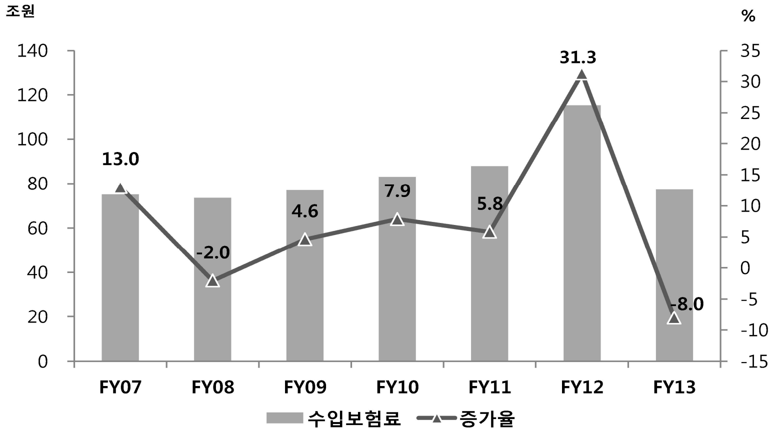
2.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개요

■ FY2013[2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중 생존,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 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0%[21] 줄어듦.

-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이 증가하였으나 세제개편[22]의 영향으로 전년도 급등했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인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0.6% 감소함.

그림 Ⅱ-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주: FY2013은 2013년 4월~12월의 9개월간임.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25.7% 증가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2013년 말까지 60%로 상향

20)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FY2013은 2013년 4월~12월로 9개월간임. 또한 12월에 진입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실적이 포함됨.
21) 2013년 10월 기준전망 당시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정치는 -3.8%임.
22) 2012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시행 전 일반 저축성보험 가입 수요가 급증하였음.

조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보험료가 증가함.

- 한편 경기회복세 지연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 해약률은 7.2%로 2008년 이후 하락추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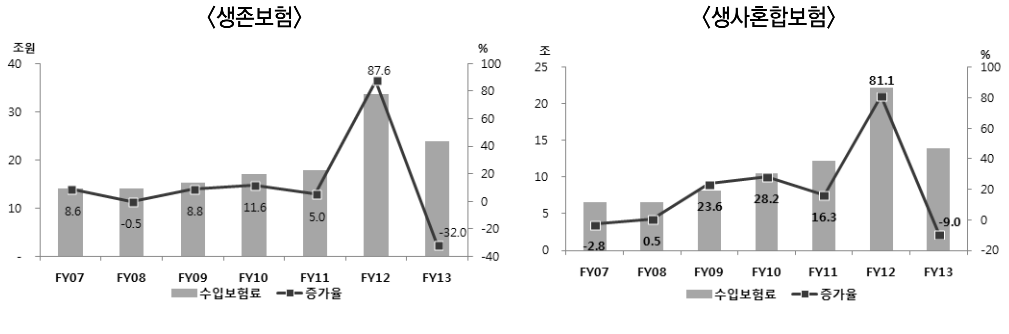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혜택 축소와 저금리에 따른 저축성보험 성장세 둔화로 2.4% 성장에 그칠 전망임.

-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전략에 따라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 건강보험 등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23]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인센티브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4년 들어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24] 혜택이 축소된 것은 저축성보험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3년 10월,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4.4%로 전망하였으나 저축성보험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함.

그림 Ⅱ-2 저축성보험 종목별 추이



23)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
24) 2013년 소득세법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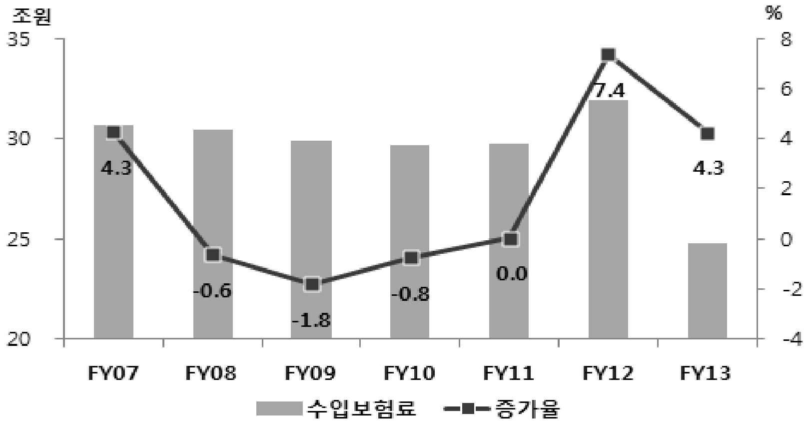
2) 개인보험

〈보장성보험[25]〉

■ FY2013 보장성보험은 질병보험과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유지율도 안정되어 전년동기대비 4.3% 성장을 기록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7 이후 5년 만인 FY2012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그림 Ⅱ-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저축성보험으로 편중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3.3%, 4.8% 증가함.

25)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 2014년 보장성보험은 지속적인 신상품 출시로 6.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장성보험 해약률은 낮아지는 모습(FY2008 11.4% → FY2012 9.3%)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이외에도 보장이 강화된 암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신계약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4년 보장성보험이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 따라 이를 6.9%로 상향 조정함.
  - 다만 불투명한 경기회복 여부가 보장성보험 성장세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저축성보험[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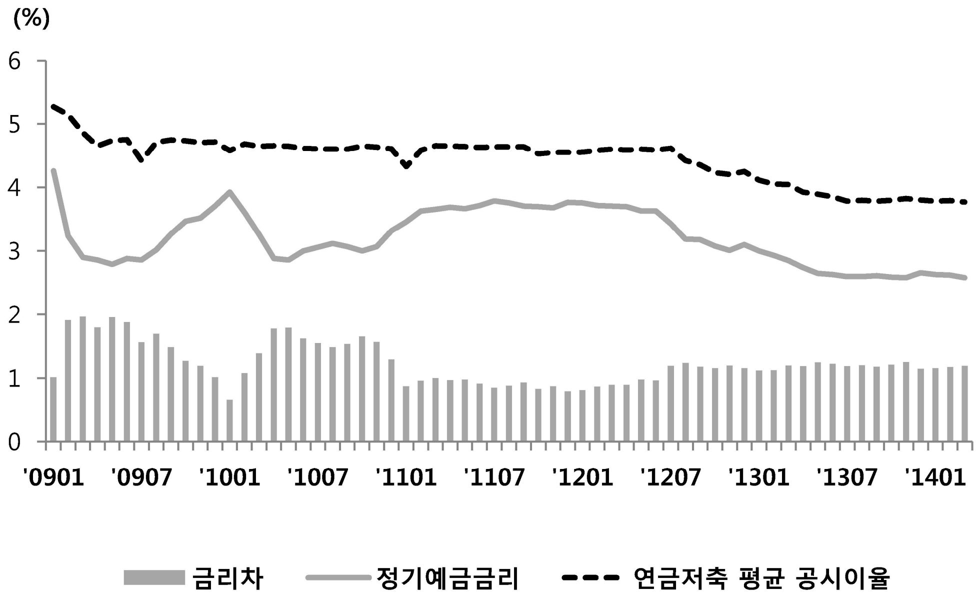
■ FY2013 저축성보험은 2012년 8월 세제개편으로 인한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큰 폭의 감소세(-17.2%)를 나타냄.

- FY2013 생사혼합보험은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가 49.4%, 수입보험료가 9.0%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법개정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도변경 전 가입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FY2012 8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상대적인 고금리[27]와 세제혜택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음.

---

26)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포함함.
27) 2012년 중반 이후 시중금리 하락으로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이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약 1%p 높은 수준이 최근까지 유지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이 지속되었음.

그림 Ⅱ-4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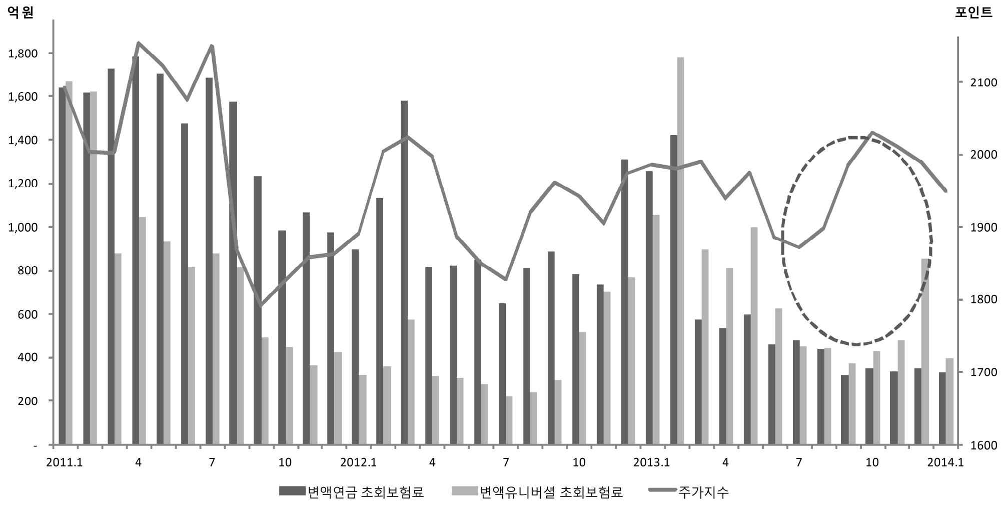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2년 8월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가 발표되면서 FY2012 87.6% 증가한 이후 FY2013에는 초회보험료가 69.7%, 수입보험료가 32.0% 감소함.

- FY2012 하반기 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났던 변액저축성보험[28] 수입보험료는 FY2013 0.9% 감소하였음.
  - 특히 FY2013 중반 이후 주가 회복과는 상관없이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28)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임.

그림 Ⅱ-5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 2014년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 소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에도 불구하고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노력 등으로 인해 0.5% 감소가 전망됨.

- 생존보험 중 연금저축은 세제혜택 축소로 매력도가 떨어졌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상대적 세제혜택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변액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가에 대한 민감도 약화로 감소하고 있어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이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 소멸, 저금리 환경,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 등으로 4.6% 성장할 것으로 2013년 10월 전망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전망치를 5.1%p 하향함.
  - 이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산운용이율 하락으로 보험회사들이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과 변액보험 판매부진 현황을 반영한 것임.

- 다만 상대적 비과세 혜택부각, 연금저축 활성화 정책 시행 여부, 환급률을 높인 온라인 후취형 변액보험 판매 등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표 Ⅱ-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년(기존전망)		2014년(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248,094	4.3	345,067	4.3	352,157	6.9
저축성	448,383	-17.2	747,184	4.6	662,928	-0.5
개인계	696,477	-10.6	1,092,251	4.5	1,015,085	1.9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

3) 단체보험

■ FY2013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7% 성장하였음.

- FY2013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27.5% 성장하였으나 FY2013은 업계 결산월이 포함된 3분기 실적임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성장률은 5.3%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이 2013년 12월말까지 60%로 상향조정[29]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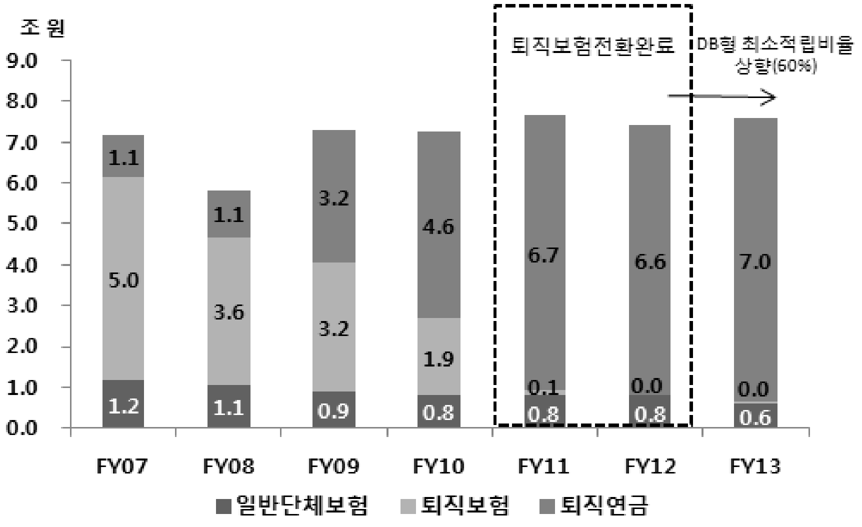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2013. 12. 31까지 60%, 2014. 1. 1~2015. 12. 31까지 70%, 2016. 11~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함.

● 또한 저금리 지속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함으로써 기업의 추가적립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 퇴직연금 가입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만큼 추가적립을 해야 함.
- 저금리 지속에 따라 퇴직연금자산 운용수익률이 하락(2012년 4.7% → 2013년 3.9%)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저보증이율(원리금 보장형)과의 차이만큼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이 생김.

● 한편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0.5%의 증가세로 돌아선 후 FY2013 전년동기대비 6.3% 성장함.

그림 Ⅱ-6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 2014년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7.3%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률이 70%로 상향되는 2015년 말까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기존 계약에 의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3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77.3% 수준으로, 2013년 3월 75.5%보다 1.8%p 상승하는데 그쳐 신규가입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30)
- 또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여전히 부진한 것31)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시장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임.

● 당초 일반단체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요인 부재로 단체보험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저금리 지속에 따른 퇴직연금 추가보험료 납입 등으로 4.4%p 상향조정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에 따라 2013년 12월 말 전년동월 대비 초회보험료는 87.6%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과 저금리 지속에 따른 추가납입이 예상되어 전망치를 조정함.

표 Ⅱ-5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년(기존전망)		2014년(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	696,477	-10.6	1,092,251	4.5	1,015,085	1.9
단체	75,891	25.7	78,318	2.9	96,226	7.3
합계	772,367	-8.0	1,170,569	4.4	1,111,311	2.4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30)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2014. 5. 15), 2014년 3월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게시.
31) 2014년 3월 말 중소기업(300인 미만) 퇴직연금 도입률은 15.3%임.

3. 손해보험

〈손해보험 개요〉

■ FY2013[32)] 손해보험[33)]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증가세가 둔화되고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도 저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4.2%[34)] 증가에 그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5.6% 증가하여 증가율이 두자리 수에서 한 자릿수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2012년 8월 세제개편안[35)]에 대한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 약화 등으로 3.1% 증가에 그쳤으며,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기업의 추가적립 부담 증가 등으로 9.8% 늘어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 상품 증가로 0.4%의 저성장을 지속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감소하였고 특종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체 1.5% 성장에 그침.

■ 2014년[36)] 손해보험 대부분 종목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FY2013에 비하여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5.8%로 전망됨.

---

32)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FY2013 원수보험료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기준이며, 증가율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증가율임.
33)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34) 2013년 10월 기존전망 당시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정치는 4.6%임.
35)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변경 이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음.
36) 2014년 원수보험료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 기준이며, 증가율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증가율임.

-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된 데에는 제도개선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37]가 포함된 만큼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3보다 1.5%p 높은 7.1%로 전망됨.

-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항목 및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나 2012년부터 지속된 초회보험료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1.0% 감소가 예상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과 초회보험료 회복세가 더해져 14.5%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와 요율 인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제한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으로 2.2% 성장에 그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상 및 보증보험이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증가폭이 크지 않아 5.1%증가가 전망됨.

- FY2013 일부 종목의 원수보험료 추정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2014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기존 6.1%에서 5.8%로 하향 조정함.

---

37) 위에서 언급한 2012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와 이에 따른 장기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를 의미함.

표 Ⅱ-6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341,432	21.2	401,896	17.7	315,478	5.6	450,233	7.4	448,132	7.1
저축성	97,465	55.8	124,559	27.8	89,300	-4.3	127,235	4.6	126,015	4.5
상해·질병	146,045	11.4	166,786	14.2	142,314	16.1	208,153	12.2	209,967	12.5
재물	28,993	33.1	37,429	29.1	28,198	0.1	39,226	3.3	37,247	-0.6
기타[4]	68,929	3.9	73,122	6.1	55,666	1.6	75,619	2.1	74,904	1.2
연금부문	66,900	24.8	74,337	11.1	62,991	6.3	80,726	5.1	82,797	6.0
개인연금	34,273	38.8	41,489	21.1	31,829	3.1	46,294	6.7	42,015	-1.0
퇴직보험	835	-84.2	9	-	10	-	-	-	-	-
퇴직연금	31,791	34.6	32,840	3.3	31,152	9.8	34,432	2.9	40,782	14.5
자동차	130,415	5.1	128,416	-1.5	97,435	0.4	132,621	2.3	131,663	2.2
일반손보	70,901	12.7	80,773	13.9	61,679	1.5	88,486	6.2	85,785	5.1
화재	2,636	-0.9	3,293	25.0	2,413	-2.9	3,286	0.1	3,160	-1.9
해상	8,699	12.7	8,230	-5.4	6,016	-10.7	8,538	6.8	7,934	5.7
보증	15,172	16.1	15,816	4.2	11,238	-4.8	16,566	6.1	15,894	4.2
특종[5]	44,394	12.5	53,433	20.4	42,012	5.6	60,096	6.4	58,797	5.6
전체	609,648	16.7	685,422	12.4	537,582	4.2	752,065	6.1	748,377	5.8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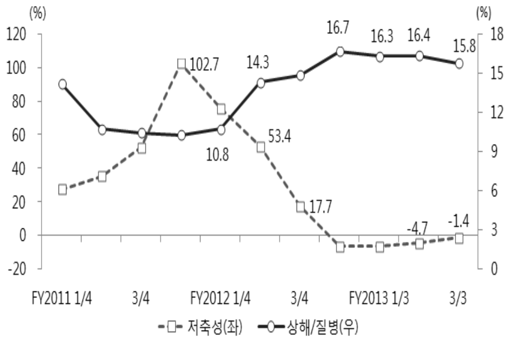
〈장기손해보험〉

■ FY2013 장기손해보험[38] 원수보험료는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6% 증가에 그쳤으며, 그 동안 계속된 두 자리수의 고성장 흐름이 한 자릿수로 둔화됨.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방안의 영향으로 FY2012 27.8% 고성장하였으나, FY2013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4.3% 감소함.
  - 제도시행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 신규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FY2013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6.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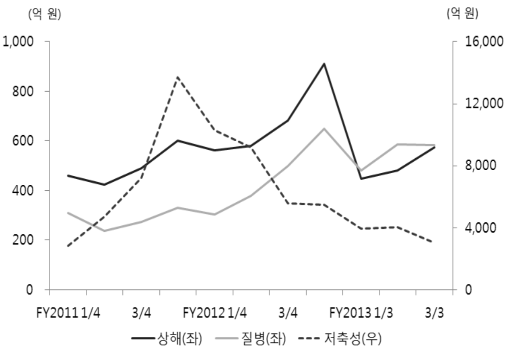
- 장기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39]의 영향으로 늘어났던 신규가입 계약의 계속보험료가 꾸준히 유입되어 전체 16.1% 증가함.

그림 Ⅱ-7 저축성 및 상해 · 질병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8 분기별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8) FY2013 기준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이며,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질병보험이 각각 25.7%와 19.4%를 차지함.
39) 2013년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됨.

- FY2012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제도변경 이전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 각각 38.4%, 58.9% 증가함.
- FY2013 장기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기저효과로 17.6% 감소하였으나, 장기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신규수요 감소폭이 작아 40.6% 증가함.

■ 2014년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성장으로 전체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7.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저축성보험은 타금융권 대비 금리경쟁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다소 회복할 것이나 이전과 같은 고성장은 어려워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으로 급증한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어 증가율이 FY2013 16.1%에서 2014년 12.5%로 낮아질 것임.
- 단, 장기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작고 수요확대 요인[40]도 존재하여 2014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인 7.4%에서 7.1%로 0.3%p 하향 조정함.
- 당초 전망에서도 장기 재물보험과 기타 보험의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였으나 최근 둔화 추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 전망치를 기존에 비하여 각각 3.9%p, 0.9%p 하향 조정함.

40)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간병보험 시장 확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실적 개선.

표 Ⅱ-7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341,432	21.2	401,896	17.7	315,478	5.6	450,233	7.4	448,132	7.1
저축성	97,465	55.8	124,559	27.8	89,300	-4.3	127,235	4.6	126,015	4.5
상해·질병	146,045	11.4	166,786	14.2	142,314	16.1	208,153	12.2	209,967	12.5
재물	28,993	33.1	37,429	29.1	28,198	0.1	39,226	3.3	37,247	-0.6
기타[4]	68,929	3.9	73,122	6.1	55,666	1.6	75,619	2.1	74,904	1.2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FY2013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41])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퇴직연금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42])에 힘입어 FY2011과 FY2012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으나, 이와 같은 효과가 줄어들고 연금저축상품 수수료가 인하[43])되어 FY2013 3.1% 증가에 그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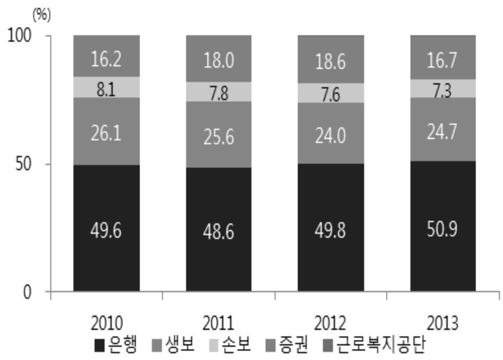
41)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연금저축이라 말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에 포함됨.
42) 2011년 1월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43)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44])이 높아진데다 운영수익률 하락으로 기업의 추가적립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9.8% 증가함.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각 연도 말(3/4분기)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실적이 2013년 말(3/3분기)에는 42.3% 증가하였음.[45])
- 단, 금융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의 경우 2013년 은행과 생명보험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과 증권은 감소함.

그림 Ⅱ-9 연금부문 초회보험료 추이

그림 Ⅱ-10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자료: 금감원.

■ 2014년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의 회복세가 예상되나 개인연금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전체 6.0% 증가가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2011년 이후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도 신규수요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2013. 12. 31까지 60%, 2014. 1. 1~2015. 12. 31까지 70%, 2016. 11~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함.

45)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납입이 12월에 이루어져 연말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보험료 가운데 12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다른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46] 혜택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3년 말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회복세를 보인데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높아지는 제도변화 요인 등으로 14.5% 증가가 전망됨.

표 Ⅱ-8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금부문	66,900	24.8	74,337	11.1	62,991	6.3	80,726	5.1	82,797	6.0
개인연금	34,273	38.8	41,489	21.1	31,829	3.1	46,294	6.7	42,015	-1.0
퇴직보험	835	-84.2	9	–	10	–	–	–	–	–
퇴직연금	31,791	34.6	32,840	3.3	31,152	9.8	34,432	2.9	40,782	14.5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 5.1%보다 0.9%p 상향 조정함.

– 개인연금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변화를 감안하여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기존에 비하여 7.7%p 하향 조정함.

– 퇴직연금의 경우 예상보다 상승한 2013년 말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실적치와 2014년 1/4분기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고려하여 2014년 전망치를 기존에 비하여 11.6%p 상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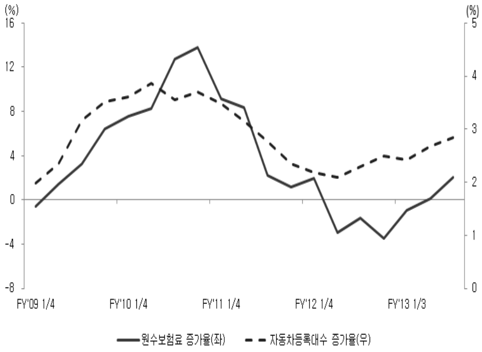
46) 2014년부터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

〈자동차보험〉

■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상승하였으나 대당 경과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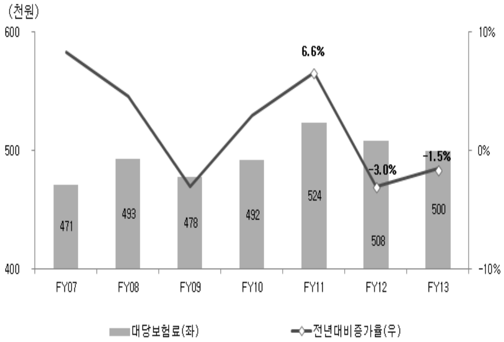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수입차 판매 증가와 자동차 내구성 증가에 따른 폐차 감소[47]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Ⅱ-11 원수보험료/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그림 Ⅱ-12 대당 경과보험료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대당 경과보험료는 사고자 특별 할증률 인하, 주행거리 연동특약 및 블랙박스 할인 특약 확대 등 할인형 상품 증가로 감소함.

---

4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7. 11),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돌파가 눈앞에".

■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와 요율 인상 등으로 증가할 것이나, 제한적인 보험료 인상폭 등으로 증가율은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등록대수 월별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14년에 들어서면서 손해율이 높은 영업용, 업무용 자동차의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에도 주행거리 연동특약과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온라인 판매증가도 전망됨.

표 Ⅱ-9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30,415	5.1	128,416	-1.5	97,435	0.4	132,621	2.3	131,663	2.2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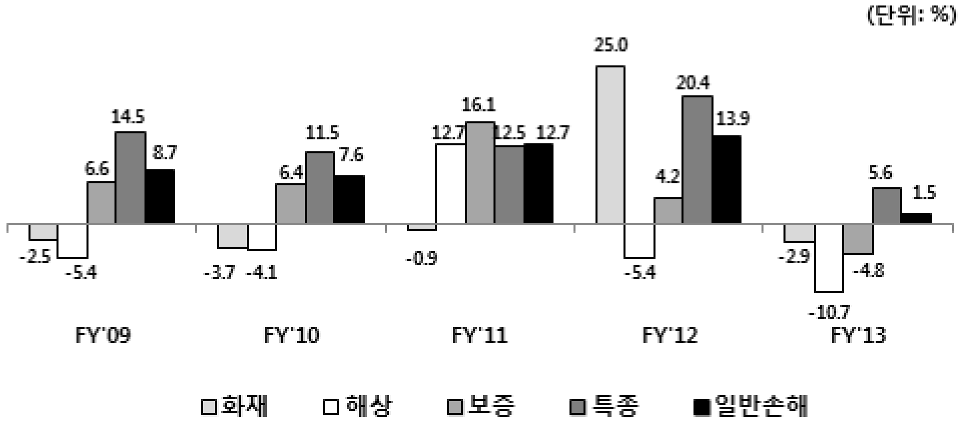
- 당초 예상보다 할인형 상품 증가 영향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0.1%p 하향 조정함.

〈일반손해보험〉

■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해상, 보증보험의 감소와 특종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1.5% 성장에 그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의무가입 수요[48]가 특종보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보험으로 분산되었고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2.9% 감소함.

그림 Ⅱ-1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해운업황 부진 등으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 10.7% 감소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의 저성장과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 등으로 4.8% 감소함.
- 특종보험의 경우 기술보험과 상해보험 부진 등으로 5.6% 증가하는데 그침.

48)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3년 8월 22일까지 해당 법률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의 가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 약화와 다른 보험[49]으로의 물건이탈 추세 지속으로 2013년보다 1.9% 감소할 전망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해운업 및 조선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선박보험의 저성장이 예상되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적하보험 회복 등으로 5.7%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부진과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등으로 이행 보증 보험과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부진이 예상되나 전년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4.2% 증가가 예상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종합보험, 상해보험 등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기술보험 부진이 지속되면서 5.6%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임.
  - 종업원 복지확대를 위한 기업의 단체 상해보험 수요 증가 및 기업성 종합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일반손해보험 일부 종목의 FY2013 원수보험료 실적이 경기둔화 등으로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전망치를 기존 6.2%에서 5.1%로 하향 조정함.
  - 해운업 및 조선업 침체 심화로 해상보험 성장률 전망치를 6.8%에서 1.1%p 하향 조정하였고, 보증보험도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1.9%p 하향 조정함.

---

49)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 재물 및 통합형보험.

표 Ⅱ-10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1]		FY2012		FY2013[2]		2014(F) 기존전망		2014(F)[3]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보	70,901	12.7	80,773	13.9	61,679	1.5	88,486	6.2	85,785	5.1
화재	2,636	-0.9	3,293	25.0	2,413	-2.9	3,286	0.1	3,160	-1.9
해상	8,699	12.7	8,230	-5.4	6,016	-10.7	8,538	6.8	7,934	5.7
보증	15,172	16.1	15,816	4.2	11,238	-4.8	16,566	6.1	15,894	4.2
특종[5]	44,394	12.5	53,433	20.4	42,012	5.6	60,096	6.4	58,797	5.6

주: 1) FY2011 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부록 1. 2014년 생명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2)]		전망모형 추정결과[4)]	2014(F)[3)]	
	연납화 초회보험료	증가율	연납화 초회보험료	증가율		연납화 초회보험료	증가율
개인보험	238,458	25.8	103,989	-33.1		203,649	3.9
보장성	59,262	4.5	41,932	0.6	↘	66,192	11.2
저축성	179,196	35.0	62,058	-45.5	↗	137,457	7.8
단체보험	63,308	-65.7	60,715	21.8		94,885	27.9
합계	301,766	-19.4	164,704	-19.8		298,533	14.3

주: 1)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
2)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4) 추세를 화살표로 표시하였으며, ↗는 상승, →는 변화없음, ↘는 감소를 나타냄. 전망모형은 2013년 기저효과로 인해 보장성보험 연납화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반면 저축성보험 연납화 초회보험료는 감소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타금융상품 대비 상대적인 비과세혜택 부각, 환급률을 높인 온라인 후취형 변액보험 판매 등으로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단체보험은 제도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망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2. 2014년 장기성 손해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1]		전망모형 추정결과[4]	2014(F)[2]	
	연납화 초회보험료	증가율	연납화 초회보험료	증가율		연납화 초회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137,371	18.6	78,374	-21.3	↗	113,619	-2.1
저축성	58,791	12.1	26,435	-42.6		39,882	1.8
상해·질병	52,275	42.0	35,743	4.8		53,383	-1.0
재물	13,847	-13.7	9,463	-13.2		11,205	-9.7
기타[3]	12,458	18.5	6,734	-21.3		9,150	-14.0
연금부문	36,862	-38.5	9,195	-67.9		16,376	-6.0
개인연금	9,286	-35.4	2,056	-71.8	↗	2,760	-31.8
퇴직보험	-	-	-	-		-	-
퇴직연금	27,576	-39.5	7,138	-66.5		13,616	1.8
합계	174,233	-0.9	87,569	-31.7		129,995	-2.7

주: 1) FY2013은 2013년 4월~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월~12월) 대비로 산출함.
2) 2014(F)는 2014년 1월~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월~12월) 대비로 산출함.
3)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4) 추세를 화살표로 표시하였으며, ↗는 상승, →는 변화없음, ↘는 감소를 나타냄. 전망모형은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 초회보험료를 전망하고 있는데, 모형추정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2013년 증가율에 비해 상승하는 것으로, 개인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014년 1/4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2014년 전망치를 도출하였음.
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망모형 추정 결과가 상승,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감소로 나타났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저자약력

총 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경제·금융

경제총괄	전용식(연구위원)
해외경제	이아름(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연구원)
국내금융	이해랑(연구원)

보험산업

보험총괄	전용식(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수석담당역)
	이해랑(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선임연구원)
	채원영(연구원)

CEO Report 2014-0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발 행 일	2014년 6월
발 행 인	강 호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1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